안동권문의 발전과 위상을 제고시킨 아들과 딸 며느리에게 공로패 증정

권오상 전 사무총장, 권경웅 전례위원회 전 부위원장, 권영찬 회장, 권춘자 고문, 이경자 신사임당상(왼쪽부터)

권영창 대종회 회장은 안동권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안동권문의 위상과 명예를 제고시킨 권경웅 전 전례위원회 부위원장과 권오상 전 대종회 사무총장, 권춘자 부산부녀회 고문과 이경자 제55대 신사임당상(像)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권경웅 전 부위원장은 전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오랜 기간 재임하시면서 시조 태사공을 모시는 각종 제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었고 예법을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권오상 대종회 전 사무총장 겸 총무국장은 오랜 기간 재임하시면서 대종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권춘자 부산부녀회 고문은 안동권문 최초로 부산부녀회와 합창단을 창설하고 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안동권문 역사상 처음으로 딸이 공로패를 수상하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경자(권혁홍 대양그룹 회장 배우자) 제55대 신사임당상(像)은 2023년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주최하는 신사임당상에 안동권씨 며느리로서 최초로 추대되어 안동권문의 명예와 위상을 제고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경자 제55대 신사임당상은 안동권문의 딸과 며느리 그 누구도 추대된 적이 없는 신사임당상에 역사상 최초로 며느리로서 신사임당상에 추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56대(2024년), 제57대(2025년)에도 재추대되어 신사임당상 추대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을 갱신하며 활약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대종회에서는 2022년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이경자 안동권문의 며느리를 신사임당상으로 추천한 바 있다. 이경자 신사임당상은 문학박사이기도 하다.

권행완 편집국장

(재)능동장학회 장학생 19명 선발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능동장학회(이사장 권영창)에서는 6월 20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2025년 안동권씨 대종회 정기총회 시 장학생 19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각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장학금 후원자는 단체로서는 강릉종친회, 개인으로는 권병돈 상임위원과 권기준 종무위원(문경공종손)이 각각 100만원씩을 기부하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안동권씨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후원했다.

권영창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던 능동장학회를 2023년 11월 28일 대종회로 이관하고 2024년 10월 24일 능동장학회 이사장에 취임한 바 있다.

다음은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 명단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2025년도 능동장학회 장학생 명단❖

성명	성별	대학교	학년	주소
권수민	여	고려대학교 약학과	3	서울
권우진	남	세한대학교 기술교육과	4	서울
권경민	남	충남대학교 컴퓨터융합학부	3	대구
권순민	남	건국대학교 메카트로닉스학과	4	군산
권소정	여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	3	양주
권광명	남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3	서울
권세진	여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4	서울
권태헌	여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2	부산
권경민	남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4	고양
권태준	남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3	인천
권효은	여	국립경국대학교 간호학과	3	안동
권다일	남	동신대학교 건축학과	3	나주
권희진	여	경성대학교 정보통신공학	3	부산
권도희	남	충북대학교 전기공학과	3	안동
권태형	남	계명대학교 토목공학	3	안동
권민수	남	국립경국대학교 전자공학	4	대전
권시현	여	경기대학교 응용통계학	2	경주
권나경	여	전북대학교 융합자율전공	1	포항
권오훈	남	백석대학교 응급구조학	2	영천

추밀공파 매헌공 종중 선조 묘소 순례

참판공 묘소 앞에서 기념촬영

추밀공파 매헌공(權遇, 16世) 종중(회장 권용호) 회원 20여 명은 5월 24일(토) 이른 아침부터 괴산과 정읍과 장수에 자리한 선조 묘소 순례길에 올랐다. 권용주, 권순호 고문을 비롯하여 권태관 전 매헌공 종중 회장, 권순만 사무국장, 권영렬 이사, 권용일 이사와 부인 장경옥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행완 편집국장이 동행 취재했다.

매헌공은 양촌 권근의 동생이고, 조(措, 판윤공), 채(採, 호당공), 기(技, 참판공) 세 아들을 두었다. 판윤공의 묘소는 남양주 진접읍에 있어서 매헌공 향사 시 늘 같은 날 제향을 드리고 있다. 호당공은 사가독서(賜暇讀書) 1호로 안동권문의 사시지문(四始之門) 중 호당지시(湖堂之始)의 주인공이다. 권순호 고문은 호당공은 나이 40에 별세하여 후손들이 1492년에 정읍으로 낙향했다. 정읍에 정착한 후손들은 호당공을 모셔오기 위해 파묘를 하고 유골을 수습하여 정읍으로 내려가는 중에 주막에 하루 밤을 묵게 되었는데, 누군가 귀한 물건인 줄 알고 훔쳐 가버렸다고 한다. 그 바람에 당시 묘를 쓸 수가 없었고 권순호 고문이 매헌공 회장을 할 때 불과 얼마 전에 설단하여 단소를 건립했다고 말했다. 참판공의 묘소는 괴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병판을 지낸 사위묘가 뒤에 있어서 둘레석을 둘렀다고 한다. 사위 묘소는 찾아오는 후손들도 없는 듯 들어갈 수조차 없게 칡넝쿨이 거침없이 뻗어 있었다. 참배가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며느리 장경옥씨에게 선조 묘소를 순례하는 소감문을 부탁했다. 순례 중 언제 썼는지 끝나기도 전에 소감문을 아래와 같이 보내왔다.

장경옥씨와 권용일 이사

가족들에게 다정하셨던 시아버님(순성)께서 매헌공 이사로 오래 활동하시다 6년 전 돌아가시고 남편이 아버님의 뒤를 이어 젊은 나이에 매헌공 이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나 아내가 고생할까 싶어서인지 두 분 모두 "다녀오마" 할 뿐 종중 일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님의 병환이 깊어 한시도 돌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편이 더해져서 이겠지요. 그러던 차에 남편이 웬일인지 이번 매헌공 3계 지파 묘소 참배에 함께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남편 따라 움직일 수 있을까 싶어 고민 끝에 괴산, 장수, 정읍이라는 하루 일정으로는 빡빡한 조상 묘소 참배 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루쯤 어머니 돌봄에서 벗어나 바람 쐬고 싶은 마음도 있었구요. 대절한 버스에서 처음 뵙는 스무 분 넘는 연로하신 이사님들이 데면데면하지 않으시고 본인들 며느리인양 반가워라 기특해라 해주셔서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습니다. 주말인데도 막히지 않아 이런 걸 '조상님 덕'이라고 하나 싶었습니다. 괴산에 내려 문정공계 묘소를 둘러 보았습니다. 친정에서는 왕릉말고는 따로 오래된 묘소를 참배한 경험이 없었는데 우리 시댁은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그것도 다른 지파 방계묘소까지 참배하고 기린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순례가 처음이기도 하고 배경을 잘 몰라서 낯설어 하고 있었는데 문정공 회장님이 문정공의 업적과 그 후손들의 입신양명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장수로 이동하여 점심식사 후 시댁의 직계선조이신 20세 수(壽, 참봉공 영호당) 할아버님 묘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중의 흥망성쇠를 거쳐 오늘의 묘비가 건립되고 묘역이 정비되기까지의 어려움의 역사를 설명하시는 판윤공 회장님의 회한에는 절로 숙연해졌습니다. 이어 1시간 반을 달려 마지막 참배지인 정읍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라서인지 버스 안에서 호당공 영진 이사님이 신나게 정읍의 특산물도 설명해 주시고 젊은 시절의 추억담을 재미나게 풀어 놓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호당공 묘소에서는 선조들을 기리고 후손들의 우의를 다지는 종회가 앞으로 젊은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시는 이사님들의 간절한 바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참배에서는 더 많은 종원님들을 뵐 수 있었으면 하고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묘소 근처에 자라는 고사리를 한 줌 따주신 어르신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맛나게 고사리 조기조림 해서 먹으며 오늘 일을 오래도록 추억하겠습니다.

권순호 고문은 매헌공 종중은 단합이 잘 된다. 3계 지파가 단합하여 순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젊은 50대도 종중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 매헌공 종중은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읍의 역사적 인물인 안맹담과 정의공주 이야기, 세조의 친구인 단종의 장인 송현수 이야기 등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또한 태산현(정읍, 태인현)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안동권씨(동권), 서쪽에는 성주이씨(성이), 북쪽에는 남양홍씨(북홍), 남쪽에는 은진송씨(남송)가 대표적인 양반이라고 설명했다.

일행은 월탄 박종화가 썼다는 양호재(洋乎齋) 재사 앞 비석의 비문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권용주 고문께서 발을 헛디뎌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 봉합수술을 하고 CT활영 등 진단한 결과 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서야 안도하고 발길을 서울로 향했다. 안동권씨를 이끌어가는 인문정신은 무엇일까 순례 내내 든 생각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제584주기 현덕왕후 기신제 봉행

제584주기 현덕왕후 기신제가 6월 10일 11시 동구릉 현릉에서 70여 명의 참제원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범수 현릉봉향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문종대와 제573주기와 현덕왕후 제584주기 기신제에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이재필 본부장은 함께 하게 되어 영광이고 왕릉 제향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위에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향은 초헌관 이주석, 아헌관 권두찬, 종헌관 이규대로 분정하여 헌작하였다.

현덕왕후의 후손인 부정공파에서는 권효준 부정공파 회장, 권용주 성균관유도회안동지부 회장, 권유달 회장 등이 버스 1대를 대절하여 참석하였고, 안동권씨 대종회에서는 권태정 검교공파 서울지부 회장, 권오운 부회장, 권태직 회장,

권행완 편집국장이 참석하였다.

권행완 편집국장

한수재 선생 묘소 앞

은진송씨 송자각하종친회 임원 및 후손들 수암 권상하 선생 유적 참배

400년 사제의 의리와 인연의 계승

2025년 5월 17일(토), 황강영당 및 수암사(충청북도 제천시 미륵송계로), 한수재 권상하 선생 묘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손동리)에서는 은진송씨 송자각하종친회(우암 송시열 선생 종중. 공사원 송안호 및 종원 등 26명)와 안동권씨 시중공파 화천군 종중(화천군 종중 종손 권종한, 문순공 종중 종손 권태중, 화천군 종중 이사장 권형중 등) 양 가문이 조우하는 뜻깊고 반가운 만남이 있었다.

400년 전 우암 송시열 선생과 한수재 권상하 선생이 맺었던 사제의 의리가 다시 상기되고 후손들의 인연이 현재까지도 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박한 현시대에 보기 드문 정겨운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우암 송시열 선생은 효종, 현종, 숙종 3조 군왕의 스승이자 주자와 율곡 이이 선생, 사계 김장생 선생의 학문을 계승하여 조선의 주자학을 집대성, 특히 조선 후기 존주대의를 상징하는 선현(先賢)이시며, 한수재 권상하 선생은 우암 선생의 학문과 의리를 충실히 계승, 특히 스승의 유명에 따라 화양동에 만동묘를 건립하여 춘추대의를 고양하는 조선 의리의 본산을 조성하였고 훗날 화양서원을 창건하여 스승의 위패를 봉안하는 등 스승에 대한 의리를 다하였으며 강문 8학사 등 조선 성리학사에서 명성이 쟁쟁한 학자들을 양성한 유현(儒賢)이다.

이날 행사에는 은진송씨 송자각하 종친회 송안호 공사원 등 15명, 후학 박관규 박사(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차장), 최형보(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학예사), 최민 변호사(법무법인 가인) 등 3인, 광산김씨 종중 김광순 종손(사계 김장생 선생의 증손이자 숙종대왕의 국구인 광성부원군 김만기 선생의 종손), 안동권씨 시중공파 화천군 종중 종손 권종한, 문순공 종중 종손 권태중, 화천군 종중 이사장 권형중, 화천군 종중 고문 권재중 외 3명 등이 참석하였다.

은진송씨 송자각하 종친회 임원들은 화천군파 종중 임원들의 안내를 받아 황강영당 및 수암사, 한수재 선생 묘역 등을 차례대로 봉심하였다. 한수재 선생 묘소에서는 제물을 진설하고 초헌 송안호 공사원, 아헌 권태중 종손, 종헌 권종한 종손이 고유하였는 바, 우암 선생의 유명을 받아 춘추의리를 고수하고 화양동에 만동묘와 화양서원을 창건하여 천하의 의리가 영세토록 실추되지 않게 한 한수재 선생의 공덕을 칭송하는 고유문을 올렸다.

박관규 박사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차장